

보성차, 유네스코 공식 차 선정 '쾌거'

품질·브랜드 가치 인정...내달 국제이해교육원에 공급 군, 브랜딩차 3종 세트 개발 국제 행사 등 선물용 활용

보성 차(茶)가 유네스코(UNESCO)에 공식 차로 선정되는 등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차생산자조합에서 생산된 차가 다음달 초부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에 공식 차로 공급된다.

이번에 유네스코로 공급되는 보성 차는 보성차생산자조합에서 개발한 브랜딩차(tea)로 국제 행사나 컨벤션 등에서 참석자 선물용이나 웰컴티로 쓰이게 된다.

보성의 차가 유네스코 대표 차로 선정된 데에는 차의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과 건강하고 소통하자'는 보성 차의 브랜드 가치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인류 평화의 가치와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보성군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군은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의 가치인 '생각하고(Think), 공유하여(Share), 실천한다(Act)'에 기반을 두고

새롭게 브랜딩차 3종 세트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녹차를 베이스로 해 머리를 맑게 해주는 생각차(Think tea), 카페인이 없어 남녀노소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허브티 공유차(Share tea), 홍차를 베이스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든 실천차(Act tea)를 만들어 차를 나누며 함께하고 서로 소통하자는 의미를 담아냈다.

보성군은 유네스코 공식 차 공급을 계기로 보성차 세계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19일부터 22일에 하동군에서 열린 '제6회 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해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홍보 활동을 펼쳤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유네스코 공식 차로 보성 차가 선정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보성군이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에 공급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브랜딩차 3종 세트. <보성군 제공>

큰 기회가 생겼다"면서 "세계 곳곳에서 보성의 차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차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물론, 건강하게, 신뢰하

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고품질 차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고흥군, 천경자·목신일 주제 문화공간 조성 생가가 있는 골목길 문화교류 거점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고흥군이 고흥읍 골목길에 인물과 역사 중심의 문화교류 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28일 고흥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9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홍양골 마인드 찾아 따르릉 옥백리' 사업이 선정돼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사업명칭에서 알 수 있듯 독자적 화풍을 이룬 천경자 화백과 귀에 익은 동요인 '자전거'를 작곡한 목신일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고흥읍 서문리와 옥하리 600m 골목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은 천 화백의 화풍을 따라 이곳의 골목길을 정비하고, 지역 미술·음악 활동가와 마을 주민 그리고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교류 거점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천경자 화백의 미술과 목신일 선생의 음악이라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특화된 지역자산을 활용한 문화 도시재생 사업"이라며 "향후 고흥군의 문화와 역사, 도시문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도시재생 사업모델을 찾아내고 지역문화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곡성하수처리장, 친환경 휴식공간 탈바꿈 주변 장미·느티나무 심고 원두막 등 설치 주민쉼터 조성

곡성하수처리장이 친환경 자연휴식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28일 곡성군에 따르면 부정적인 인식으로 혐오시설로 치부됐던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대폭 개선해 친환경 주민쉼터를 조성했다. <사진>

군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언제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친환경 주민쉼터를 조성해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하수처리장 주변 1km에 달하는 진입로와 섬진강변 제방에는 느티나무, 벚꽃, 백일홍을 심어 숲속 터널을 연출했다.

특히 세계장미축제가 열리는 명실상부 장미의 고향답게 진입로 양쪽에는 장미를 심어 섬진강 침실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장미의 향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다.

하수처리장에 정원은 직접 식물들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원두막과 연못을 설치했다. 수상식물을 이용한 수질

정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원두막과 연못 등은 학생, 지역주민, 관광객 등에게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수질정화에 관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건물 내부에는 홍보관을 설치했다.

학생, 지역 주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환경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수질정화 과정 등 친환경적인 시설 운영하는 영상물을 제작해 상영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매년 노후된 오두막 및 주변 울타리 잠복제거, 조경작업, 꽃식재 등을 통해 혐오시설이라는 고착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지역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체험교육장과 언제나 찾아와 쉬어갈 수 있는 주민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구례군, 농지 내 묘목재배 근절 나섰다 제조제 과다 사용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걸림돌

구례군이 친환경농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지 내 묘목 재배 근절에 나섰다.

구례군은 지난 2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읍·면 지역발전혁신협의회 위원 등 15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

구례군의 이번 행사는 군이 2017년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도시를 선포하고 친환경 농업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농지 내 철쭉 등의 묘목 재배에 따른 제조제 과다 사용으로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행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서인수 소장이 강사로 나서 PLS 교육 및 농지 내 묘목재배 문제점을 교육하고 참석자의 뜻을 모아 철쭉재배 근

절과 친환경 농업 실천 의지를 담은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대회에 앞서 민선 7기 군정비전 설명회도 열렸다.

김순호 구례군수가 직접 PT로 '민선 7기 구례발전 4+a 권역 미래비전'을 발표했으며 군읍면 혁신협의회 위원들과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 시간도 가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선 7기 비전을 구체화하고 농지 내 묘목재배 근절을 위한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크고 작은 현안을 지역민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보성군, '강소농' 운영자 30명 대상 경영개선 교육

보성군이 농업의 새로운 희망이 될 '강소농' 운영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후속교육을 진행 중이다.

군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7월16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나의 농장을 소개합니다'라는 주제로 실시된다.

강소농(強小農)은 가족 중심의 소규모 농가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를 뜻한다.

이번 교육은 자신의 경영체와 농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군은 '강소농 육성사업'을 통해 작은 영농 규모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도록 다양한 교육과 사업(팜파티) 등을 지원해, 경영역량 향상과 소득증대를 통해 농업경영개선을 돕고 있다.

군은 올해 17명의 신규 강소농을 선발했으며 현재 12개 읍·면 361농가의 강소농이 활동 중이다.

또 협업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자율모임체 5개 팀을 육성하고 있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내 농장을 소개하는 것은 판매의 첫걸음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내 농장에 대하여 가장 잘 소개하는 전문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구례군, 103곳에 종량제봉투 수거함 시범 설치

구례군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쓰레기 수거지점 103개소에 종량제봉투 수거함을 시범 설치했다.

그동안 일반쓰레기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와는 달리 종량제봉투에 담아 길거리에 배출하면서 길고양이, 쥐 등 야생동물들이 봉투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봉투가 훼손되면서 생활쓰레기가 주변에 흩날리고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종량제봉투 수거가 용이한 수거함을 시범설치하고,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경우 종량제봉투 설치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쓰레기와 환경 문제는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군민 모두가 주민의식을 갖고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함에 반드시 넣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임야 단독심

▶ 바로삽니다
▶ 지분물건 환영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갈라강판 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